

임신 증상

임신의 증상은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임신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건강한 임신 10개월을 지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초기 증상

월경이 멈춘다

임신의 가장 큰 변화는 월경이 멈추는 것이다. 월경 주기가 정확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 늦으면 임신이 틀림없다.

입덧

입덧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체상의 여러 가지 물리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대부분 3개월 말이 되면 심한 메스꺼움은 멈추지만,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구역질은 임신기간 내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유방이 변한다

임신 초기 징후 중 하나로 가슴이 매우 민감해지고 아프다.

빈뇨

첫 3달과 마지막 3달이 매우 심하다.

변비

입덧이 있는 시기는 변비가 되기 쉽고, 임신중이나 분만 후의 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질출혈

임신 중, 특히 초기 3개월간 하혈 또는 피가 비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혈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생리 때 보다는 가벼우며, 색도 붉은 색에서 갈색까지 다양하다.

중기 증상

빈혈

사람은 매일 15mg 정도의 적지 않은 무기질을 필요로 하는데 임신 후에는 체내 혈액양이 거의 50% 정도 증가하므로 철분도 두 배가 필요하다. 임신부와 아기를 위한 헤모글로빈을 생산하기 위해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태동

태아는 임신 1~2개월쯤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산모는 16-20주 정도는 되어야 태동을 느낄 수 있다.

허리통증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과 몸의 중심이 변화하기 때문에 임신기간 내내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잇몸출혈

임신기간 중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잇몸이 약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임신호르몬의 영향으로 잇몸이 붓고 염증이 나기 때문에 이를 닦거나 잇몸을 자극하면 피가 나게 되는 것이다.

치질

치질은 직장의 정맥류성 정맥으로, 직장이 자주 가렵거나 피가 나면 일단 치질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몸 속에 흐르는 피의 양이 많아져 혈관이 확장하고, 특히 자궁 주위의 혈관들은 자궁이 커지면서 압박을 받으므로 혈액순환에 방해가 받게 되어 부풀거나 확장되어 치질이 발생한다.

후기 증상

임신성 부종

임신을 하게 되면 손발이 자주 붓게 된다. 자궁이 커지면서 자궁 밑의 골반혈관과 대정맥에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울혈(鬱血)현상이 발생하며, 혈액의 압력으로 수분이 다리와 발목으로 가 손발이 붓게 되는 것이다.

호흡곤란

임신 후기로 갈수록 자궁이 점점 커져 위와 심장, 허파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가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숨쉬기가 곤란해진다.

정맥류성 정맥

정맥류성 정맥은 임신기간 중 자궁이 커지면서 대정맥을 압박해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는데, 무릎 안쪽과 허벅지 안쪽, 외음부 질벽, 항문 등에 주로 생긴다. ㉞

〈출처 : 이지데이〉

